오다 노부나가(1534~1582)는 긴카잔 산 기슭의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강 양쪽에 고텐을 지었다. 건물이나 정원을 건설하기 위해 경사지를 계단 형태로 조성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높이 차이는 30m 나 된다.

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(1532~1597)는 저서 '일본사'에 고텐의 놀라운 크기와 웅장함에 대해 적었다. 1 층에만 15 개에서 20 개의 방이 있었고, 2 층은 노부나가의 부인을 위한 층이었다. 또한 3 층은 다실로, 4 층은 거리와 그 주변을 조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. 이 건물의 지붕기와 파편을 통해 지붕이 금박기와로 덮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또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과거 이 고텐 주변에 5 개 또는 6 개의 장식 정원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.